제 1 교시

국어 영역

Team All-Back.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독서 지형은 단일한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특이한 읽기 방법들은 독자가 목적에 따라 글을 선택하고 재조합하는 능동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독창적인 의미 구성에 기여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엮어 읽기'와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는 '발췌 읽기'가 있다.

엮어 읽기는 하나의 주제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러 편의 작품을 함께 엮어서 비교하며 읽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을 교차 검토하기 때문에 독서 속도는 필연적으로 느리지만, 정보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어 내용적으로 매우 탄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엮어 읽기가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독자가 수집한 텍스트들의 수준이 지나치게 이질적이거나 중심 맥락을 잡지 못할 경우,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해석의 방향을 잃고 독서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발췌 읽기는 방대한 텍스트 중에서 독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긴 부분만을 골라 빠르게 읽는 방법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속도 측면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텍스트를 단편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저자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 구조를 놓쳐 내용적으로 부실해지기 쉽다. 이때 독자는 발췌 읽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췌한 조각들을 임시로 연결해 보는 과도기적 단계의 엮어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 흩어진 발췌 정보들을 잠정적인 맥락으로 묶어 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부실했던 읽기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결국 엮어 읽기와 발췌 읽기는 심층적 탐구냐 신속한 정보 탐색이냐에 따라 독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도구들이다. 중요한 점은 두 방법 모두 정보를 고도로 범주화하고 맥락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논리적 사고와 문해 능력, 즉 대학에서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두 방법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인지적 역량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특이한 읽기 방법은 독자의 능동성을 극대화시킨다.
② 특이한 읽기의 메커니즘을 오해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③ 엮어 읽기는 텍스트 간 이질성이 높아도 항상 성공한다.
④ 발췌 읽기는 핵심만 골라 읽으므로 글의 전체 맥락을 놓치기 쉽다.
⑤ 엮어 읽기와 발췌 읽기는 대학 학업을 위한 수학 능력을 요구한다.

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속한 정보 탐색을 위해 텍스트 간 이질성이 높은 작품들을 엮어 읽는다.
② 정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방대한 텍스트 전체를 순차적으로 발췌 읽기 한다.
③ 심층적 탐구를 할 때 내용의 부실함을 보완하기 위해 발췌 읽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④ 한정된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만 골라 엮어 읽기 한다.
⑤ 발췌 읽기의 맥락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도기적 단계의 엮어 읽기를 적절히 수행한다.

3. <보기>의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독서 목적] 현대 사회의 기후 변화 원인과 해결 방안 파악

[나의 독서 과정]

• 1단계: 『지구 온난화의 실태』라는 책에서 '온실가스 배출 추이'가 기록된 통계 표와 결과 데이터만을 골라 신속하게 확인하며 읽음.
• 2단계: 1단계에서 골라낸 데이터만으로는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인과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음.
• 3단계: 이에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 놓고, 환경 과학 학술지의 '탄소 순환 이론' 칼럼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보고서'를 추가로 찾아내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함께 읽음.
• 4단계: 추가된 정보들을 종합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후 과제 제출을 완료함.

① 1단계에서 데이터만 골라 빠르게 읽은 것은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엮어 읽기'겠군.
② 2단계에서 인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편적 정보 수용으로 논리 구조를 놓치는 '발췌 읽기'의 한계 탓이겠군.
③ 3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비교하며 읽은 것은 '발췌 읽기'의 빠른 속도가 지닌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이겠군.
④ 3단계에서 정보들을 잠정적 맥락으로 묶은 것은 '엮어 읽기'의 정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겠군.
⑤ 4단계에서 정보를 종합해 과제를 마친 것은 대학 학업에 필요한 수학 능력이 독서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만 발휘됨을 의미하는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테이블을 쪼개어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샤딩이라고 한다. 샤딩은 주로 전용 함수인 DB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관할한다. 거대한 테이블에 분할 규칙을 적용했다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찾아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발상인데, 이때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 지정을 돕는 이를 인수라 부른다.

샤딩 시스템에서 DB함수가 처리하는 인수의 단위인 비트는 그 수에 따라 처리 용량이 다르다. 과거 시스템은 8비트 인수를 활용했으나 표현 경로가 256가지에 불과했다. 반면 현대 샤딩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 분할을 위해 65,536가지 값을 표현하는 16비트 인수를 주로 사용한다. 컴퓨터 내부에서 16비트 인수는 16진수 표기법을 활용하며,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 A부터 F까지의 문자를 조합한다. 이 상황에서 인수 9 이후에는 알파벳을 차례대로 나열하여 10 이상의 숫자를 나타내고, 10진수로 15를 나타내는 마지막 알파벳인 F 이후 16이 되면 자리올림이 발생하여 16진수 숫자 '10'이 된다. 그 이후 16진수의 '10'부터 '19'까지는 숫자로 이어지다가 다시 알파벳의 차례가 되면 바로 전의 숫자인 십의 자리를 붙여 나타낸다. 늘어난 비트 수 덕분에 라우팅 테이블은 세분화된 비트의 값으로 분할 규칙을 예측하고 복잡한 패턴을 관리한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인수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용자가 누리집에 글을 쓰는 경우, 글쓴이의 단순한 글자 데이터는 실시간 전송을 보장하는 소켓 통신을 거쳐 서버로 이동한다. 이때 서버의 DB함수는 글의 고유 번호를 기반으로 16비트 인수를 생성한다. 그 후 서버는 생성한 인수의 값을 라우팅 테이블에 입력하여 저장될 경로의 주소를 계산해 낸다. 이후 라우팅 테이블이 유도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인수를 포함한 글 데이터가 최종 저장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동성을 가지며 언제든지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용량이 큰 동영상과 사진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이동하는 경우 인수의 수가 글자 데이터에서의 인수의 수보다 수천 배 많아지는데, 이를 위해 데이터 이동은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하되, 복잡한 인수를 가진 데이터를 위한 대책으로 (가)베이스64 방식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로 쪼개어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수행한다. 변환된 베이스64 문자는 라우팅 테이블이 규칙을 판단하기 쉽도록 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만약 위 방법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수의 인수의 값이 소켓 통신의 최대 수송량을 초과한다면, 심각한 오동작을 유발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DB함수가 인수를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시스템은 데이터 이동 시 인수의 크기를 DB함수 단계에서 검증하여 데이터가 (나)오버플로우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데이터를 발송한 이에게 다시 반송한다.

10.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대 샤딩 시스템이 대규모 데이터 분할을 위해 65,536가지 값을 표현하는 인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② 컴퓨터 내부에서 16진수 표기법을 활용할 때 어떤 자리에 숫자 또는 알파벳이 오는지 그 규칙을 알게 되었다.
③ 누리집에 글을 쓸 때 소켓 통신을 거쳐 서버로 이동한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 저장되는지 확인하였다.
④ 멀티미디어 데이터보다 글자 데이터의 인수가 많아질 때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인수들을 처리하는지 알게 되었다.
⑤ 인수의 크기가 소켓 통신의 최대 수송량을 초과하여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 시스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이해하였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6비트 인수는 8비트 인수보다 더 많은 값을 표현하여 대규모 데이터 분할에 유리하다.
② 글자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이동은 모두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③ 16진수 표기법 체계에서 알파벳 F 이후 16이 되면 자리올림이 발생해 '10'이 된다.
④ 베이스64 방식은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16비트씩 쪼개어 문자로 치환한다.
⑤ 인수의 값이 소켓 통신의 최대 수송량을 초과하면 데이터를 발송한 이에게 반송한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자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이동 모두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②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가 16진수 표기법에 의해 자동으로 자리올림되기 때문이다.
③ 라우팅 테이블이 유도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인수가 최종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④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글자 데이터가 유동성을 가지며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⑤ 베이스64 방식에서 많은 양의 인수를 판별하기 위한 인코딩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딩 시스템을 운용하는 한 서버의 소켓 통신 최대 수송량은 10진수 기준으로 '27'로 제한되어 있다. 어느 날 이 서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데이터 전송 요청이 발생하였다.

○ 요청 X: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16진수 '1A'로 변환하여 이동을 시도함.

○ 요청 Y: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임의의 테이블에 모인 인수를 16진수 '1C'로 변환하여 이동을 시도함.

(단, 시스템은 데이터 이동 시 인수의 크기를 DB함수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며, 인수의 값은 소켓 통신의 수송량과 직접 비례한다고 가정함.)

① 요청 X가 (가)방식을 거치면 라우팅 테이블이 규칙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② 요청 X의 인수 '1A'는 10진수 '27'보다 작으므로 (나)를 만족하지 않고 이동한다.
③ 요청 Y의 인수 '1C'는 (가)를 만족하는 범위의 테이블이므로 (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④ 요청 Y가 (가)를 거친 후 최대 수송량을 초과해 (나)를 만족시키면 시스템은 데이터를 반송시키지 않는다.
⑤ 요청 X와 Y 모두 (가)를 거쳤으므로 최대 수송량을 초과해 (나)가 발생하더라도 DB함수가 인수를 생성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희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인간 도덕성이 하늘이 부여한 바른 원리인 천리에 기반한다는 성리학을 정립하며, 마음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공부인 거경궁리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악하는 공부인 격물치지로 도덕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거경궁리는 내면의 올바른 자세를 지키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즉 내면을 ⓐ다스리는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격물치지는 외물에 내재된 솔직한 이치를 불러내어 사물 속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물의 보편적 법칙에 주목한 주희는 남송 시대에 인간의 도덕적 실천이 학문적 탐구를 통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성리학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주체성이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양명학 등의 등장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성리학에서는 고정적인 규범이 강조되므로 현실의 주체적 결단이 ⓑ위축되는 사람도 반드시 도덕 실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외적인 규범 뒤로 현실에서의 주체적 결단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을 이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이 이른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는 지행의 분리로 인해 개별적 실천이 형식화되는 지식 중심적 학풍이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왕수인은 성리학과 대립했던 양명학에서 앎과 행함은 원래 하나라는 지행합일과 인간의 마음이 곧 세계의 이치라는 심즉리를 인정하는 입장에 따랐으며, 주체성은 외적 규칙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세계와 현실 행동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았다. 반면 주희처럼 심즉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외적 탐구와 사물의 객관적 이치를 간과한 양명학은 도덕 실천을 주관적 마음에 가두어 구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공인하되,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실리 중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때 성리학의 예법만을 따를 뿐 현실의 상업적 이익을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실리적 효용이 특정되지 않아 도덕 실천에 대한 학문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과, 성리학은 일본 사회에서 체제 안정을 위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실리적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대립하였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격물치지는 외물에 내재된 이치를 규명함으로써 도덕적 진정성을 드러내려는 공부다.
② 성리학의 고정적 규범은 현실에서 주체의 결단을 감추고 욕망을 이중적으로 드러내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③ 양명학에는 인간의 주체성을 외적 규칙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마음과 행동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으로 보았다.
④ 심즉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에 따르면 지행이 분리되는 것은 마음 세계와 현실 행동의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⑤ 일본 성리학 논쟁에서 다수 의견은 제3자가 현실의 상업적 이익을 인식했는지의 여부를 학문적 책임의 기준으로 삼았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실리적 효용을 강조한 배경은 사물의 객관적 이치를 따지는 성리학의 외적 탐구 경향과 통한다.
② ㉡이 제3자의 인식 여부를 부정한 배경은 성리학을 체제 안정을 위한 고정적 규범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③ ㉠이 상업적 이익을 기준으로 삼은 배경은 도덕 실천을 주관적 마음에 가둔 양명학적 근거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④ ㉡이 체제 안정 기능을 내세운 배경은 외적 예법의 틀 유지 자체가 도덕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⑤ ㉠이 실리 유무로 책임을 논한 배경은 성리학이 도덕 실천을 주관적으로 마음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16. 윗글의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보기>의 인물들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지행의 통합을 깨닫고 외적 규칙에 예속되지 않은 채 주체적인 결단으로 도덕을 실천함.
을 -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공인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상업적 이익 등 현실의 실리를 중심에 두고 결정을 내림.
병 -	사물의 객관적 이치를 규명함으로써 내면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함.
정 -	선험적이고 고정적인 예법을 철저히 수행하여 개인의 결단보다 체제 안정에 기여함.

① 갑에 대해 주희와 일본의 다수 의견은 모두 긍정하겠다.
② 을에 대해 왕수인은 긍정하겠으나, 일본의 소수 의견은 긍정하지 않겠다.
③ 병에 대해 주희는 긍정하겠으나, 왕수인은 긍정하지 않겠다.
④ 정에 대해 주희는 긍정하지 않겠으나, 일본의 소수 의견은 긍정하겠다.
⑤ 갑과 정에 대해 왕수인은 모두 긍정하겠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조절(調節)하는 ② ⓑ: 감축(減縮)되는
③ ⓒ: 수정(修正)하고 ④ ⓓ: 편중(偏重)되는
⑤ ⓔ: 배척(排斥)하되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께쓰를 들고 나타난다. 바께스 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 있다.

"추위에 고생하십니다요."

ⓑ농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복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뭘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우, 하고 너거운 소리를 농부가 또 덧붙인다. 역장은 난로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남았다. 바께스를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 넣은 다음 바께스는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도 역시 무료했으리라. 눈 얘기, 지난 농사와 물가에 관한 얘기, 얼마 전 새로 갈린 면장과 머지않아 읍내에 생기게 된다는 종합 병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화제는 이어진다. 처음엔 역장과 농부가 주연이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들 중 음울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이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 사내는 난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퉁이를 한 켠으로 치워놓는다. 그 보퉁이엔 한 두름의 굴비, 그리고 낡고 때묻은 내복 따위 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내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A]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우?"
늙은 역장이 곁의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아,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삼십 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아니까요. 허허."
"아,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톱밥 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씨가 흰 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 광장의 행상꾼에게서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와 눈길을 헤치며 찾아갔던 허씨의 집에서 그가 들은 것은 노모가 이미 오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웃 장씨의 무심한 대답뿐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말없이 톱밥난로를 바라보며 각자가 짊어진 삶의 슬픔과 상처를 반추한다. 연착되던 막차가 야속하게 밤 깊은 간이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중년 사내와 농부, 여자들은 저마다의 고단한 행선지를 향해 서둘러 기차에 몸을 싣는다.

그 사이 열차는 이 조그만 간이역에다 숨가쁜 한숨을 남겨놓고는, 이내 어둠 저편으로 붉은 미등을 번뜩이며 사라져 가고 있었다.

플랫폼의 가로등 불빛 속에서 한바탕 소용돌이치던 눈발이 이윽고 조용히 가라앉는다. 미처 기차를 타지 못했거나 혹은 내리지도 않은 채, 아직도 대합실 안에는 몇 사람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톱밥 난로는 이미 불길이 잦아들어 거뭇거뭇한 재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대합실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청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대합실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눈바람이 대합실 안으로 들이쳤지만, 이제 난로가로 다가와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친 여자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서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늙은 실업자는 감아쥔 손을 놓지 못한 채 차가워진 난로의 철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역장은 빈 바께스를 들고 개찰구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철길은 이미 쏟아지는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었고, 밤은 깊어 갈 대로 깊어 이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소리 없이 삼켜 버린 후였다. 그 침묵 속에서 역장은 문득 자신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이 작은 간이역이, 실은 거대한 세상의 변두리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쓸쓸한 대피소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대합실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전등이 꺼질 때마다 어둠이 한 걸음씩 더 밀려들어와 사람들의 지치고 위축된 얼굴을 지워 버렸다. 마지막 불빛마저 사라진 사평역의 유리창 너머로, 백색의 송이눈들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없이 슬픔처럼 낮게 흩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 임철우, 「사평역」 -

18.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역장과 사내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② 사내는 역장의 질문에 불쾌해하며 과거의 소외감을 떠올렸다.
③ 역장은 대화를 나누며 상대가 뭔가를 숨긴다는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④ 역장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내에게 이곳에 온 목적을 종용했다.
⑤ 질문이 이어지자 사내는 에둘러 말하며 상대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19.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대합실의 자리가 협소해지자 ⓒ에게 말을 걸었다.
② ⓑ는 기차가 연착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에게 거친 목소리로 항의했다.
③ ⓒ는 ⓐ와 ⓑ가 나누는 대화 내용에 반발하여 자신의 보퉁이를 한 켠으로 치워놓았다.
④ ⓓ는 ⓔ가 고향 집에서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고 간이역에 찾아왔다.
⑤ ⓓ는 과거 감방에서 ⓔ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선물을 구입했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인물들에게 육체적 온기를 제공할 뿐,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② ㉡은 거대한 세상의 변두리라는 공간적 속성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들의 고립된 처지를 은유한다.
③ ㉠의 불길이 잦아드는 것은 인물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됨을 의미한다.
④ ㉡은 인물들이 간이역에 머무는 동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농촌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공간적 장치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에서 '눈(雪)'은 세상을 덮어 소음을 지우는 정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물들의 발자취를 지워가는 망각의 이미지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 기차의 연착은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대합실이라는 공간을 고립된 섬처럼 만든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정지는 인물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게 하거나, 반대로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채 표류하게 만드는 이중적 계기로 작용한다.

① '톱밥을 쏟아 넣는' 역장의 모습에서, 정적 속에서 대합실의 일상을 억지로 이어가며 고립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② '주소를 잘못 알았다'는 사내의 말에서, 정지된 시간 속에서 과거를 응시하다 좌절을 확인하고 발자취를 지우려는 '방어적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③ '음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지 않는' 젊은 사내의 모습에서, 고립된 섬 같은 대합실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고립된 실존'을 엿볼 수 있겠군.
④ '빈 바께스를 들고 서' 있는 역장의 모습에서, 소음을 지우는 눈처럼 자신의 삶 또한 세상의 망각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을 직감하는 '허무'를 엿볼 수 있겠군.
⑤ '불빛마저 사라진' 사평역의 풍경에서, 기차 연착이 끝난 후 인물들이 외부 세계로 흩어지며 존재의 흔적이 지워지는 '비애'를 엿볼 수 있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었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

(나)

그해 겨울이 지나고 나는 외길 위에 서 있었다.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뱉어 놓은 말들이 하얗게 얼어붙어 갈 때,
나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치장하던
그 수많은 고백의 문장들을 생각했다.

돌아보면 내 삶은 언제나 **나를 연기하는 극장**이었다.
더 나은 자아를 보여 주려 안달하던 밤들,
그러나 **바람이 불어와 가꾸어진 환상을 유령처럼 걷어낼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길 끝의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지독하게 비루하고 찌부러진 내 본연의 자화상이었다.

이제 나는 **전하지 못한 편지 같은 부끄러움**을 안고
묵묵히 **이 황량한 길**을 걸어간다.
내 입술을 경유하여 튕겨져 나간 **거짓 언어들이**
다시 내 가슴으로 돌아와 박히는 통증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내 안의 지워지지 않는 슬픔과 대면한다.

- 기형도,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

(다)

매(鷹)를 기르는 사람들은 매의 **깃털과 부리를 다듬**고 **방울을 달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매의 용맹함을 자랑하여 타인에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소소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매가 날쌔게 사냥하는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해하고, 매가 **꿩을 잡지 못하면 기운이 빠져 탄식한다.**

아! 내 일찍이 인간의 성품을 돌아보건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꾸며대듯, 매를 다듬는 행위 역시 겉모습을 빌려와 자기를 ⓑ<u>이상화</u>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스스로를 꾸미는 행동은 실제 자신의 비루함을 가리기 위한 임시의 방편일 뿐이다. 매의 사냥 능력에 따라 기뻐하고 실망하는 것은 그 본질을 잊어버린 행동이다.

그러나 그 **빌려온 화려함이 사라지고 오직 매의 굶주린 본성과 대면**하게 될 때, 깨닫는 자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고백하건대, **나의 언어와 행동 역시 남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거짓**이 많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한계를 초과하여 삶의 의도를 왜곡시킨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 마음의 거울을 닦듯 매의 본질을 보며** 나의 위선을 깊이 반성하노라.

- 이첨, 「응계설(鷹溪說)」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연민을 드러낸다.
⑤ 외재적 대상을 매개로 하여 화자 자신의 내면을 환기하고 있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은 것을 '욕될까'라고 한 것은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②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고 한 것은 지난 삶에 대한 회의를 보여 준다.
③ '또 한 줄의 참회록'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다시 반성할 것임을 암시한다.
④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는 순수한 본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나타낸다.
⑤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오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고 재회하게 된 이상적 자아를 드러낸다.

24. (나)의 '나'와 '타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공간은 '나'가 세속적 욕망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
② '나'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했던 고백들은 결국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③ '나'는 '타인'이 가꾸어 놓은 환상을 통해 자신의 비루한 자화상을 가리려 한다.
④ '나'는 '타인'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를 통해 단절되었던 소통을 비로소 회복한다.
⑤ '나'가 '타인'을 위해 연기하던 극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연의 얼굴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화자가 자신의 실존적 한계와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심층적 진실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세속적 공간 속에서 타인의 인정에 목매며, 스스로 가공해 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안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세계가 외부의 힘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는 순간, 화자는 도피해 왔던 비루한 실제 현실과 결핍을 직면하게 된다. 결국 시인은 정념의 파산을 통해 얻게 된 통증을 견뎌내며, 가짜 삶을 청산하고 본연의 슬픔을 실존적으로 수용하려는 상태를 형상화한다.

① '내가 뱉어 놓은 말들이 하얗게 얼어붙어 갈 때'는 타인을 설득하려던 화자의 정념이 추진력을 잃고 식어버린 파국의 상태를 나타낸다.
② '나를 연기하는 극장'과 '더 나은 자아를 보여 주려 안달하던 밤들'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존재 의미를 찾으려 했던 주체의 집착을 보여 준다.
③ '바람이 불어와 가꾸어진 환상을 유령처럼 걷어낼 때'는 허구적 방어막이 무너지며 은폐되었던 주체의 결핍이 폭로되는 순간을 뜻한다.
④ '전하지 못한 편지 같은 부끄러움'을 안고 '이 황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외면하고 과거의 환상을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⑤ '거짓 언어들이 다시 내 가슴으로 돌아와 박히는 통증'은 삶의 위선이 파산한 이후에 찾아온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감내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타인의 평판을 얻기 위해 암흑 같은 시대적 현실에 순응하려 하는 주체의 타협적 태도다.
② ⓑ는 인위적인 치장을 청산하고 사물 고유의 날것 그대로의 본질을 수용하려는 주체의 태도다.
③ ⓐ와 달리 ⓑ는 타인에게 평판을 얻기 위해 외부의 화려함을 빌려와 자기를 꾸미는 행동이다.
④ ⓑ와 달리 ⓐ는 사물이 내는 외적인 성과에 화자의 정서를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시도다.
⑤ ⓐ와 ⓑ 모두 세속적 기준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삶을 왜곡해 왔던 인간 중심적 태도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는 외물(外物)의 본질을 왜곡하여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이기적 태도를 비판한다. 화자가 매의 깃털과 부리를 다듬는 행위는 사물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판을 얻기 위해 외양을 도구화하는 기만성에 불과하다. 인간은 이처럼 인위적인 치장을 통해 사물의 참모습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사물이 내는 성과에 자신의 감정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범하게 된다. 결국 작가는 외물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날것의 본성을 직시하는 과정을 통해, 세속적 기준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삶과 도덕적 본질을 왜곡해 왔던 인간 중심적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① '깃털과 부리를 다듬'고 '방울을 달아 치장'하는 행위는, 타인의 평판을 얻기 위해 사물의 외양을 도구화하는 인간의 이기적 태도를 보여 준다.
② 매가 '꿩을 잡지 못하면 기운이 빠져 탄식'하는 것은, 사물의 외적인 성과에 주체의 정서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드러낸다.
③ '빌려온 화려함이 사라지고 오직 매의 굶주린 본성과 대면'하는 것은, 인위적인 치장이 걷히고 사물 고유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을 뜻한다.
④ '나의 언어와 행동 역시 남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거짓'이 많았음을 반성하는 것은, 외물을 기만하던 태도가 주체 자신의 도덕적 왜곡으로 이어졌음을 자각하는 단계다.
⑤ '내 마음의 거울을 닦듯 매의 본질을 보며' 위선을 반성하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외물의 본질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성찰을 뜻한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연은 부친의 명으로 영흥에 사는 친척 최 공을 문병하러 갔다가 최 공의 딸 최월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두 사람은 인척 관계였으나 유연의 상사병이 악화되자 부모가 혼인을 허락한다. 그러나 혼삿날 밤 갑자기 쳐들어온 도적 무리에 의해 최 씨는 납치되고, 유연은 10년을 기한으로 최 씨를 찾아 집을 떠난다.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여숭으로 변장**하고 서해에 배를 띄워 대양(大洋)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 있고 천봉만학(千峰萬壑)이 봉우리마다 기이한 어느 곳에 이르렀다. 유생이 배에서 내려 점점 깊이 들어가니 큰 섬이 있었고, 섬에는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으며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10여 호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섬에 들어가 유생이 흰옷을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 바랑을 메고 죽장(竹杖)을 짚고서 양식을 구하니, 마을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이로되 저렇게 아름다운 여승은 더욱 처음이로다."

이에 유생이 대답하였다.

"소승(小僧)은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어라 부릅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여승의 미모를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서해무릉**(西海武陵)이라는 곳이오.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지요."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랑이 무거워 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때 최 씨는 밤낮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며 자나 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가슴속에서 떨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비몽사몽(非夢似夢) 사이에 한 **노승**이 나타나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부처**로다. 네 지아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노라. 내일 오시(午時)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 씨가 반가워하며 사례하고자 할 때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정오 무렵 계선이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장지문 밖에 한 여승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는데, 청수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방불(彷彿)하였습니다."

최 씨가 어제 꿈속 일이 생각나 ⓑ놀라워하고 있는데, 계선이 은근히 권하며 말하였다.

"여승은 ㉡내당(內堂)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신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날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나갈 결심을 한 최 씨가 계선이 이끄는 대로 나와 보니,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연히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삿갓 밑에 옥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身數)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風霜)과 천신만고(千辛萬苦)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중략)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 나와 원촌(遠村)에 숨어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 주어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굴은 밖으로 통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유생이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머물러 마을에서 얻어 온 양식으로 연명(延命)하며 지냈다. 마침 그곳은 장군의 집 뒷산이었다. 유생이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夜三更)에 장원(莊園) 밖에 와서 두루 살펴보았으나 실로 들어갈 곳이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유생도 어찌할 바를 몰라 장탄식(長歎息)이 밤낮으로 끊어질 때가 없었다. 이때 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피 울기를 그치지 못하였는데, 하루는 정 부인이 최 씨를 불러 달래며 말하였다.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福祿)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택일(擇日)하여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 모름지기 소저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최 씨가 다 듣고는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워 한참 뒤에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의 신세가 이러하니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 정 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장군은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하였지만,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빨리 죽고자 할 뿐이었다.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승이 앞에 다가와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돕노라.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으니 바삐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여라."

최 씨가 놀라 깨어 보니 잠결에 꾼 한바탕 꿈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헛된 적이 없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밖으로 나와 장원을 향하여 축원(祝願)을 올리며 말하였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때 마침 유생이 담장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답하여 말하였다.

"낭자가 옛 정인(情人)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 주십시오."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 보니,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였다.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오. 최 씨는 눈물을 거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담장을 향해 말하였다.

"낭군께서 이곳에 계신 줄 어찌 알았으리오.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탈출할 기약을 속히 정하여 주시옵소서." 유생 또한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조용히 답하였다.

"낭자의 고초가 오죽하였으리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함께 이곳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열하며 밤이 깊도록 손을 맞잡지 못한 채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유생은 밤마다 장원에 직접 침입해 최 씨의 동정을 살폈다.
② 여승으로 변장해 방황하던 유생은 호화로운 서해무릉에 도착했다.
③ 최 씨는 첫 꿈에서 노승의 계시를 받고 이튿날 유연과 만났다.
④ 정 부인은 최 씨의 나이를 이유로 들어 조속한 혼례를 권유했다.
⑤ 최 씨가 두 번째 꿈에서 깨어 올린 축원에 담장 밖 유연이 응답했다.

2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유생이 자신의 본래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정착하게 되는 공간이다.
② ㉡은 최 씨가 정 부인의 다급한 요구에 순응하여 유생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기로 결심하는 공간이다.
③ ㉠은 유생이 현실적 한계를 깨닫고 은거를 결심한 곳이고, ㉡은 최 씨가 외부의 조력자와 긴밀히 내통하는 곳이다.
④ ㉠은 유생이 마을 사람들에게 양식을 얻은 공간이고, ㉡은 최 씨가 꿈을 떠올려 밖으로 나가는 계기가 된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인물들이 처한 비극성이 심화되어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공간이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원치 않는 공간에 갇혀 고향과 정인을 그리워하는 심리적 고통이다.
② ⓑ: 여승의 방문 소식을 듣고 꿈속 예언이 실현되는 징후에 느낀 경이감이다.
③ ⓒ: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지아비를 마주한 최 씨의 참담한 슬픔에 공감한 것이다.
④ ⓓ: 혼례 권유를 신의 모욕으로 받아들여, 죽음을 불사하며 완강히 거부한 것이다.
⑤ ⓔ: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남을 자각하고, 목숨을 구한 것에 안도한 것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서해무릉기」는 고전 소설의 여러 서사적 관습을 활용하는 작품입니다. 고난에 처한 인물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탈출하는 관습적 구조가 나타나며, 이러한 도움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결국 위기를 완전히 돌파해 나가는 구조로 확장됩니다. 또한 인물이 변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 인물의 의지와 초월적 도움이 상호작용하며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무릉(武陵)'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현실과 단절된 이상향의 공간 이미지를 활용하여 갈등의 배경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① 최 씨가 "노승"의 말을 떠올려 나가는 것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관습적 구조군.
② 유생이 최 씨를 구하려 "여승으로 변장"해 방황하는 것은, 초월계의 도움과 인물의 의지가 반영된 행위겠군.
③ 최 씨가 "혼례" 권유에 맞서며 "부처"를 신뢰하는 것은, 의지와 초월적 도움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이겠군.
④ 억압적 사건이 벌어지는 도적의 근거지를 "서해무릉"으로 설정한 것은, 이상향의 공간 이미지를 활용한 역설적 효과겠군.
⑤ 유생이 최 씨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한 것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관습적 구조의 일환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